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부처 드러내세요



1977년 제주 원전시에 49일 천도기도를 회향하며 신도들과 기념촬영. 사진 앞 줄 가운데가 해관 스님.

음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하고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일승법(一乘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부처님의 말씀, 그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전에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뚜렷하던 시대인데 그런 때에는 아미타불을 염하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부처님의 바른 사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사상은 이 사바세계를 바로 극락세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한 참으로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단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난 연말 조계종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종(禪宗)이 불어아할 조계(曹溪)의 가람(伽藍)에 권풍(權風)이 불었지요. 탁 마상성(濁濁相成)의 도반들이라고 하여, 나는 너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고쳐가고, 너는 나의 허물을 보면서 너의 잘못을 고쳐가며 서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인데 세력도반들이 되고 말았더군요. 화두가 들어차 있어야 할 마음에 이기심이 꼭 들어차 있

나는 너의 허물을 보고 너는 나의 허물을 보고 서로 고쳐가는 것이 도반

를 많이 하면 공덕을 짓는다 하여 그 일에만 매달립니다. 마지막 5백년은 '투쟁견고(鬪爭堅固)'이니 싸움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니 이기심만 가득차서 싸움이 찾아옵니다. 도를 닦아야 할 시간에 싸움을 했으니 언제 도를 이루겠습니까. 말로는 '무소유'라고 하지만 말이 곧 도는 아니지요. 이러한 '투쟁견고'의 시기에 무엇을 갖든 어떻게 부처님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한다면 그것은 곧 '일승법'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절에 가면 불공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불공만 하면 정말 성불을 할 수 있을까요. 불공만 믿으면 복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요. 모르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한 손님을 데리고 와서는 '이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니 그 자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틀로 나누자면 한 가지는 '수타의설(隨他意說)'이고 또 한 가지는 '수자의설(隨自意說)'입니다. 수타의설은 상대를 보자면 그 근거에 맞게 방편적으로 설법을 할 것이고, 수자의설은 깨달음을 그대로 부처님 자신을 설하신 것이지요. 여러 경전 가운데 수자의설인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고, 부처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며, 부처의 정신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곧 '일승법'을 말하지요. 우리는 부처님의 행동과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부이기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힘써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날의 생활에 있어서 단 한시간 단 한순간 만이라도 참으로 이해득실을 떠나서 진심으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접촉된 것이 되며 부처님에 가까운 마음이 된 때예요. 그러한 때가 단 한마디의 말, 한번의 동작이라도 남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커다란 감화를 주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해서 가지기만 하면 차차 입으로 하는 말이나 몸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다 부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가령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줄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기에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수를 하면 중생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 정신의 덕을 쌓아가는 길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타력심이 아니라 자력심을 길러야 합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아가면서 내 자력심을 기르는 것이 근본이지요. 보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관세음보살을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보살님의 모범을 배우야 해요. 보살의 언어와 보살의 지비마음과 보살의 행동과 생활을 본받아 보살이 되어가겠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살의 모습을 닮는 것 만큼 이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구 윤 회

(성보사 포교원장)

세상속의 행복이 진실인 줄 알았다. 일에 과분히 정신없이 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 포교의 길에 나선 것은 건강때문이었다. 사업확장에 따른 과도한 업무는 끝내 만성두통과 불면증을 가져왔다. 갖가지로 얽혀 있는 인연으로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떨어져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보겠다고 보다는 그저 머리를 식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절을 찾기로 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충북에 있는 작은 암자였다. 연세가 꽤 드신 비구스님이 주지로서 계시는데 방을 한칸 내주셨다. 그런데 신선한 것은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아픈 두통이 목탁소리만 들으면 구름 걷듯 싹 사라지는 것이었다. 기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겠지

목탁소리 들으면 두통 씻은듯 걸혀 지장경 인연 참회 염불 포교 20년

여섯지만 거짓 말처럼 목탁소리와 함께 머리가 말끔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를 본 스님께서 "거사님은 부처님과 인연이 어느 사람과 다른가 봅시다"면서 책 한권을 주셨는데 <지장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불경이 거의가 그렇듯이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뜻이 잘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읽어 가면서 한가지 큰 뜻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지장보살님은 자비가 허업없어서 지옥을 아예 없애는 것을 원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 모두 성불케 하는 분이러니 그와 누구든지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예배하면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염부제의 중생들을 살펴보니 발 움직이지 생각을 일으키지 모두 죄아님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업은 마치 진흙발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아서 갈수록 점점 피곤해지며 더욱 무거워져서 발이 깊숙히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장경의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에 깊이 사무쳤고 마침내 지장보살님을 나의 원불(願佛)로 삼게



원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가 서게 되었다. 돌아보면 세상살이를 정돈하고 지장보살의 원행을 닦고자 성보사포교원을 설립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성보사

포교원은 '재가불자수행지장도량'이다. 그러나 이 일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찾아오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책임지고 있는 지장보살의 시자로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나의 수행력이다. 끊임없는 참회기도와 지장보살 염불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케하여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열심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평생원이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마음속의 부처다.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을 내가 세우고 수행하면 언젠가는 나 자신이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나 자신이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되었을까. 끝내 생사의 진흙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 보살의 언행 본 받으면 이 사회는 그만큼 맑고 향기롭게 돼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적광정토(寂光淨土)'라고 합니다. 극락정토 세계는 네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정토가 적광정토, 즉 사바세계를 말하지요. 사바세계 사람들이 환생을 하고 다시 환생을 하면서 닦아나가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닦음'이란 자기 자신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도 닦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나 글로만 장황하게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탐배공초 하나라도 잡는 실천이 있어야 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입으로만 극락세계에 가기를 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심만을 더욱 조장할 뿐이지요. 한국불교가 1600년이라는

오니 도(道)가 터져야할 조계의 가람에 싸움이 터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5백년씩 나누어 2천5백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더 설법을 하자면 부처님 입멸 후 5백년 동안은 '해탈견고(解脫堅固)'의 시기지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법문을 듣고 지시를 받으면 곧 해탈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음 5백년은 '선정견고(禪定堅固)'인데 해탈하는 사람은 없지만 도를 확실하게 닦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후 오백년은 '다문견고(多聞堅固)'라 하여 아무리 닦아도 해탈을 못하니 이경전도 찾아보고 자경전도 찾아보지만 다문반신하게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때예요. 그러니 그 다음 5백년은 '탐사견고(塔事堅固)'입니다. 탐을 많이 쌓고 시주

아버지는 무시하고 그 손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지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외우면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내 지혜 자리,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은 없는 것이예요. 또 예불을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불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예불하는 것이지요. 예불을 받는 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둘이나 흠으로 만든 불상은 둘이나 흠이 진로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아니니까요. 불상 모습을 대우하는 건 좋지만 그 모습을 진짜로 알고 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와 나는 하나란 말이예요.

Advertisement for '說法방법강의' (Dharma Lecture Course) by 韓國說法研修院. Includes contact info: 02)737-1567 / 725-1357.

Advertisement for '반야심경' (Heart Sutra) by 韓國佛教藝術文化院. Includes contact info: 02)2242-0331, 2242-0255.

Advertisement for '심야전력기기' (Night Power Equipment) by 韓國전력공사. Includes contact info: 02)883-7400.

Advertisement for '검정고시' (Certification Exam) by 韓國직업교육원. Includes contact info: 080)010-4100.